메트로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제3053호 www.metroseoul.co.kr

서비스 규제 풀어 民투자 15조 유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서비스업 관련 대못 뽑기에 나섰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없애 15조원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수출 위주이던 한국 경제를 내수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형'으로 바꿔놓겠다는 복안도 드러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서비스업 활성화 종합 대책인데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 강남무역센터 관광특구 지정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 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30여년 만에 한강을 개발해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도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유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분야 대책으로 2013년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증시가격제한폭 ±30%로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 AG 성화 채화하는 선녀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해발 472m)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 채화식'에서 주선녀가 지상 검용 이용해 성화를 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종·제주에 4개 복합리조트, 30년만에 한강 개발
서울 남산에 곤돌라, 설악산엔 케이블카 설치 지원

금융분야에서도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물류 부분에서도 덕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는 이념과 계층 특혜 문제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였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걸림돌이 있다면 뚫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당사자 반발 극복 관건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9번이나 나왔던 서비스업 관련 종합 대책들이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도 국회에 표류중이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서비스 대책도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려면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며 "정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시군구 등 지자체의 조례까지 감안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현기자 kmlee@metroseoul.co.kr

28사단 또 관심병사 2명 자살

휴가 나와… 선임병 거론 "죽이고 싶다" 메모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맨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A상병이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에 자살 예측 판정과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고 밝혔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과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자살하기 40여일 전인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8월 휴가 중 A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자살 의사를 들은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지만 분대장은 이런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B 상병의 다이어리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선임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함께 "진짜 XXX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헌병대는 B 상병의 메모에 언급된 부대 선임병을 상대로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선준기자 rnik.rnk

관피아 논란, 예외도 존재해야

기자 수첩
이재영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각계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피아는 공단, 공사, 협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취직하면서 재직했던 정부기관과 기업간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전직 관료를 말한다. 이들은 퇴직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 같은 관피아 논란에 대한 목소리는 현재 공석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원장 인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언론들은 최근 KISA가 원장 공모를 실시한 데 대해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기획비서관, 김형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등이 신청하자 또다시 관피아 논란을 언급했다. 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한다더니 KISA 원장에도 관피아 낙하산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왜 관피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백 전 비서관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이사, 코콤포터노벨리커뮤니케이션전략연구소 부사장 등을 거쳐며 주로 홍보를 담당한 만큼 인터넷 분야에 몸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비서관은 KT하이텔, 나우콤, 드림라인, 하나로드림, 다음커뮤니케이션, 오픈IPTV를 거쳐 청와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지냈다. 인터넷업계는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된다.

이런 경력에도 관료 출신이라는 이유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과연 이런 무작위적인 관피아에 대한 비난이 정당할까. 관피아 논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인물의 전문성을 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국세청장 후보,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의혹

●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임 후보자가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했지만 서울대 학적부를 보면 1987년 석사과정 2학기와 1988년 1·2학기를 등록해 1989년 2월 수료했다고 밝혔다.

'입법 로비 의혹'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신 의원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윤 일병 사건 마녀사냥" 軍 병원장 보직해임

● 국방부가 군 인권교육 중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국군항주병원장을 12일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

이 대령은 지난 8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마사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앞에서 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를 마친 화상경마장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사회가 교육·생활권 침해

"영업하면서 주민과 협의 하겠다니…" 교육청·서울시도 반대

Issue&View
용산 화상경마장 논란

/양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어른들의 무책임한 답행이 또다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이야기다.

서울 용산구 소재 30여 개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숙지의 세월호"라며 경마장 개장을 반대했다. 중·고교 여학생들까지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 6월 28일 개장해 시범운영을 강행한 뒤 성심여중·고 교장을 비롯해 화상경마장 주변 대책위원회 주민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지역주민 동의 부재, 갈등 심화

양측의 갈등은 사행 시설인 화상경마장을 주민들의 동의없이 주거밀집지역에 자리잡으며 시작됐다. 25층에 1만8000㎡가 넘는 이 화상경마장은 불과 30여m 차이로 규제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이전 승인과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현재 규정에는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는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성심여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마사회는 경마장은 상업지구에 있고 학교나 주거지역과는 6차로의 철로보와 철마로가 이중으로 막고 있어 학습권 침해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맞섰다.

마사회는 3~4개월 후인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운영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평가를 위한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원영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 대표는 "마사회는 개장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영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영업 중지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협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가 영업 방해로 주민대표 등 17명을 형사고발한 상태인데 철회한 다음에 협의하지도 않고 공문을 2~3차례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인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경마 이용객 대부분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거나 소득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주거 생활이 침해되는 것도 걱정이다. 특히 화상경마장 주변에는 건전한 상권이 훼손되고 대부업체나 불법 오락실 등 불건전한 유흥업소가 들어설 것이 뻔하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교육부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용산 화상경마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보건법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불투명

與 "재협상 없다" 파행 정국 장기화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의 파기"로 규정,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11일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로 본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은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했음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별검사 추천권만큼은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협상 마지노선을 확인한 만큼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 중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속 협상에 미온적이어서 주가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18~21일 잡혀 있는 세월호 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채택 협상도 최대 난관을 겪으면서 파행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허무하게 끝난 유병언 수사

114일 만에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씨 등 29명 구속기소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 착수 후 114일 만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함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혐의를 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됐으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역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다.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여동생이자 오 전 대사의 부인인 유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괜찮아"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예비역 장병이 입영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예산부족분 국비로"

서울시·구청장협 내달부터 지급차질 호소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예산 1154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구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예방접종 예방접종 사업비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구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당하게 떠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보경기자

교황 퍼레이드 예행연습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경찰이 서울 세종로에서 퍼레이드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년대 선풍기서 에어컨으로

(왼쪽부터)1970년 지하철 안 선풍기·2014년 지하철 안 에어컨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⑥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 딱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1970년대 지하철에는 선풍기로 불볕더위를 식혔다. 현재는 지하철 내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 26~28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다혜기자

함정서 의경들간 폭행

여수재경이 경비 함정에서 의경들간 폭행 사실이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말께 'P103 정시기동정' 취사실에 근무하는 A 일경이 후임 장모(28) 이경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 이경은 함정 배치 한 달 만에 취사실에 근무하는 A 일경으로부터 위협과 함께 가슴을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다.

이에 가족들이 여수해경을 방문해 함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조사 결과 A 일경은 후임으로 들어온 장 이경에게 '취사장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말께 손으로 2차례 가슴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관리 책임을 물어 P103정시기동정 김모 경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A 일경과 장 이경도 근무처를 바꿨다.

/문다혜기자 yellow

재건축 조합비 '먹튀' 7년만에 덜미

서울 은평경찰서는 거액의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조합비를 챙겨 달아난 혐의로 양모(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갈현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으면서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승소해 받게 된 아파트 상가 6곳을 처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조합비 5억4000만원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횡령한 돈을 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레미콘 회사를 차려 버젓이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중국에서도 회사 공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하려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아 5년간 복역한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양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문다혜기자

고층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319건 적발 시정 조치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물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319건의 부실 사례가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6월 한 달간 고층건물 667곳의 승강기 8379대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리 부실 사례 31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96곳은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고, 63곳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다. 비상호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70곳에 있었다.

안행부는 장비철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매트 등 안전용품을 설치하고 낡은 시설 부품은 바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와 안전솔 등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준기자

대학생들의 자동차 경주 201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12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군산자동차경주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학생들이 자동차 속도 측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열차 운행중 '카톡'하다니…

상습적 휴대폰 사용… 관광열차 기관사 과실치사 혐의 구속

태백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35분께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인 승무였던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는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여직원 앞에서 남자 신입사원 성추행

문체부 게임물관리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다. 남자 신입사원 A(27)씨가 회식 자리에서 선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게임물관리위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지목한 직원 4명과 이를 방관한 부장 등 총 5명을 8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감사팀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 목격하고도 방관했고 자신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선임 직원 두 명이 A씨의 팔을 잡은 채 강제로 상의를 벗긴 뒤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여직원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선임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심지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거제 앞바다서 어선 전복, 6명 사망

경상남도 거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선원 6명이 숨졌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경 거제시 남부면 매물도 인근에서 부산 선적 바지선과 경남 통영 선적 59t급 쌍끌이 동방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방 어선이 뒤집혀 어선에 탄 11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5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부산 선적 273t급 예인선과 5102t급 바지선을 연결한 예인줄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항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사고 현장에는 통영해경 경비함정, 헬기, 122구조대, 민간구조대, 해군 등이 동원돼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였다.

/김민지기자 minji@

港人食海鮮平均高4倍

해산물 사랑에 바다생물 멸종

metro HongKong

'맛' 때문에 포기 못해

홍콩인의 해산물 사랑으로 일부 바다생물의 생존이 위태롭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홍콩인의 연간 해산물 섭취량이 1인당 평균 71.2kg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18.9kg의 4배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몇몇 바다생물은 이미 멸종 위기다.

최근 실시된 '환경보호 해산물에 대한 홍콩인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일 주일에 해산물을 3번 이상 먹는다고 답했다.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은 우럭, 연어, 굴 순이었다.

다른 식품에서 해산물과 동등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해산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는 34.8% 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산물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90%의 응답자가 '맛'을 꼽았다.

세계자연보호기금 홍콩사무소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에게 '환경보호 해산물'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설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4.2%에 불과했다.

기금은 "많은 시민이 환경 보호를 위해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지침에 따라 포획 방식과 양식 방식 등을 살피고 환경보호 해산물을 구매한다면 생태 환경 파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illegible]

경제 제재로 수입 농산물 못먹어

metro Russia

울상 짓는 '동물원 식구'

Звери хотят имп

최근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품과 식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외국산 과일 등을 즐겨먹던 동물원 동물이 불만을 겪고 있다.

모스크바 동물원 대변인 안나 카추로프스카야는 "동물원 식구는 러시아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해 그 동안 수입 농산물을 먹여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추로프스카야는 "같은 종의 과일이라도 동물이 선호하는 것이 따로 있다"며 "모스크바 동물원의 경우 폴란드산 사과를 사용했다.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동물이 새로운 사과를 거부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 육류와 어류의 대체 식품은 찾았지만 유럽산 과일은 마땅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illegible]

서행 운전하다 '비비탄 총세례'

metro France

휴가시즌을 맞은 프랑스 한 고속도로에서 한 커플이 천천히 운전했다는 이유로 비비탄 총을 수차례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휴가를 맞아 몽펠리에로 향하던 이 커플은 프랑스 75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한대를 추월한 뒤 서행했다. 이후 불만을 품은 화물차 운전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뒤에 바짝 뒤를 밟았다.

이후 커플의 차에 가까워진 화물차 운전사는 비비탄 총을 겨눈 뒤 추월을 반복하며 수차례 비비탄 총을 난사했다. 커플은 다행히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건 당시 화물차 번호판을 외워둔 피해자들은 지난 수요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를 운전한 가해자는 21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무기 소지와 폭력 혐의로 오는 12월 법정에 서게 된다. /[illegible]

'검은 대륙' 에볼라 치료제 공급

서아프리카에 '지맵' 이번 주 전달… 사망자 1000명 넘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지맵'이 처음으로 '검은 대륙'에 공급된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맵을 개발한 맵바이오제약은 이번 주 내로 나이지리아와 라이베리아 의료진에게 지맵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지맵은 미국인 환자 2명과 스페인 환자에게만 투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데도 지맵이 미국과 유럽 지역 환자에게만 공급됐다는 것이다.

지맵은 시험 단계의 에볼라 치료제로 그간 일부 환자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최근 귀국한 미국인 의사를 비롯해 지맵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중국 의료진이 2주째 격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중국인 의사 7명과 간호사 1명이 현지인 간호사 5명과 함께 2주째 격리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의료진은 시에라리온 주이 병원과 캄비아 로드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했다. 주이 병원은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지금까지 717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아프리카에서 1848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중 1013명은 숨졌다. /[illegible] [illegible]@metroseoul.co.kr

11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아부자의 은남디 아지키웨 국제공항에서 공항 직원이 적외선 감지기로 경찰의 체온을 재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이라크 새 총리 지명 환영

"통합정부 구성해야"

이라크의 푸아드 마숨 이라크 대통령이 하이데르 알아바디(62) 현 국회부의장을 새 총리로 공식 지명했다. 미국은 밝은 미래를 향한 의미있는 움직임이라며 총리 지명을 반겼다.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라크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든 종파를 아우르는 통합 정부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총리 지명을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아바디 총리 지명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라크가 새 총리를 지명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알아바디 총리 지명자는 국영 방송을 통해 "우리 모두 이라크에서 테러 단계를 척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알말리키 현 총리는 이라크 안팎에서 지지를 잃고 있다. /[illegible]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2041.47	545.76
(+2.16)	(-0.54)

금리(국고3년)	환율(원/달러)
2.52	1027.50
(+0.01)	(-3.00)

휴대전화 자동 판매기기 다이소아성산업은 다이소 매장에 휴대전화 자동판매기기를 설치해 자동화 시스템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전했다. /다이소아성산업 제공

증시 떠난 소액주주들 돌아올까

Issue&View

소액주주 50만 감소

대장주 쏠림현상 심화···가계 투자 여력 늘어나야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내 증시가 박스권 탈출에 번번이 발목 잡히면서 개인투자자 등 소액주주가 되돌아올 만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가계의 주식 투자 여력이 늘어나고 저성장 속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소액주주가 돌아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액주주, 시총 상위주 대거 이탈

1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소액주주 규모를 비교한 결과, 유가증권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100위권 상장종목의 소액주주 수(계좌 수 기준)가 49만9357명 감소했다.

1년새 50만명 가까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지고 오를 때마다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의 주가 상승을 제한했다. 특히 시총 상위권 대형주에서 소액주주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의 소액주주는 이 기간 32만7191명에서 22만4206명으로 10만2985명 감소했고 두산중공업은 7만7622명 줄어든 8664명을 기록했다.

기아자동차가 22만7455명으로 4만3836명 감소했고 한국전력과 LG화학의 소액주주 역시 각각 2만2410명, 1만8157명 줄어들었다.

OCI와 삼성생명의 소액주주는 이 기간 각각 2만11명, 1만5426명 감소했다.

반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쏠림현상은 더 심화됐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13만9116명으로 8624명 늘었고 시총 2위인 현대자동차 역시 13만2843명으로 1607명 증가했다.

◆"일단 가계 지갑부터 늘려야"

증시 전문가들은 소액주주의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되려면 무엇보다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주식 투자 여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기 경제팀이 지난 6월 발표한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역시 이를 감안해 근로소득 증가와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배당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했다.

양해정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증시에서 시총 상위주의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 비중 축소는 그만큼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 영향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며 "가계에서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하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만으로 소액주주가 돌아와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노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가장 큰 약점은 어두운 실적 개선세 약화를 꼽을 수 있다"며 "올해 2분기만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2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에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찍 바빠진 물류센터 해선도(?) 이른 다음달 8일인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2일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롯데마트 오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으로 인해 평소보다 45% 이상 늘어난 하루 27만개의 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 수주 세계 1위 복귀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 7월 선박 수주실적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되찾았다.

12일 국제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7월 국가별 수주실적은 한국이 33척, 139만9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달성해 57척, 122만3000CGT에 그친 중국을 앞서며 2월 이후 5개월만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월(38만8000CGT)에 비해 3.6배나 늘어난 규모다. 월간 시장점유율로도 한국은 42.8%로 중국 37.5%과 일본 3.5%를 제쳤다.

조선업계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의 야말 프로젝트 쇄빙LNG선 계약 체결(2조8300억원), 현대중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해양플랜트 수주(약 2조원), 삼성중공업의 유조선 및 가스운반선 수주(7400억원) 등 빅3 조선소의 수주가 잇따르면서 수주실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월 누적 합계로는 한국이 206척, 724만9000CGT(시장점유율 28.6%), 중국이 512척, 1136만6000CGT(44.9%)로 여전히 중국에 크게 뒤져있다. 수주금액 기준으로도 중국은 208억 달러로 한국(193억 달러)을 앞서고 있다.

/김민지기자 k.m.j@

MS, 베터리 36일 25달러짜리 피처폰 공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가격이 25달러(약 2만5000원)에 불과한 휴대전화를 출시한다.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피처폰 노키아130이 11일(한국시간) 공개됐다.

노키아130은 한 기기에 두 개의 SIM카드를 내장해 누가시 번호를 쓸 수 있다. 용량은 32GB로 음악은 46시간, 동영상은 16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다.

1.8인치 LCD를 탑재했고 손전등, FM라디오 기능 등 여러 옵션도 들어갔다. 다만 유·무선 인터넷으로 통신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전화의 최대 장점은 배터리 지속시간이다. 자그만치 36일이다. 한 번 충전하면 안 끄고도 한 주일 가량을 더 쓸 수 있는 셈이다.

소 힐브우 MS 휴대폰 사업부 부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의 손안에 휴대전화가 없다"며 저가폰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semi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경희궁길…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3
독자센터	02)721-9801

2006년 5월 31일 창간(일간) 서울특별시 가00096

현대차 신형 i20, 베일 벗었다

인도·터키 생산 모델 공개

현대차가 파리 모터쇼 출품에 앞서 11일(현지시간) 인도에서 i20 신차발표회를 갖고 세계 최초로 신형 i20(현지명 디 일리트 i20-the Elite i20)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뉴델리 타지 팰리스(Taj Palace) 호텔에서 열린 신형 i20 신차발표회에 자동차 관계자를 비롯해 인도 주요 미디어 기자 등 200여명을 초청했다.

신형 i20는 유럽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을 맡아 유럽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신형 i20는 현대차의 혁신적인 디자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채용했다. 내부는 고급감을 강조한 인테리어와 각종 편의사항으로 무장했다. 또한 헥사고날(6각형) 프런트 그릴과 검정색 C필러로 강인하고 젊은 감각을 더했다.

특히 동급 최초로 클러스터 이오나이저와 1GB 내장 메모리 오디오, 프리미엄 슈퍼비전 클러스터 등 각종 편의사항을 갖췄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i20는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의 월드 클래스 차"라며 "신형 i20 통해 모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현대차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터키공장에서 생산될 신형 i20(현지명 뉴 제너레이션 i20-New Generation i20)의 이미지도 공개했다.

터키 생산 신형 i20는 유럽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동급 유일의 파노라마 선루프와 동급 후방카메라, 전면 LED 라이트를 추가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i20는 2008년 12월 인도공장에서 처음 생산을 시작한 후 2010년 5월부터 현대차 인도공장과 터키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 출시 후 현재까지 106만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모델로, 현대차 WRC(World Rally Championship)팀의 주력 차종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시판되지 않고 있다.

/양성희기자 fumacl@

터키에서 생산된 현대차의 신형 i20

이마트, 겨울 사과 선물세트 판매 12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과일코너에서 모델들이 추석을 앞둬 시일이 사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CA저장기술(Controlled Atmosphere)을 사용해 저를 한계를 극복한 겨울사과 부사 추석선물세트를 구성, 오는 24일까지 사전계약 판매로 5판 3천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온기 사라진 금융권, 희망퇴직 공포

작년부터 5월까지 8300여명… 연내 1만명 육박할듯

경영 악화와 실적 부진에 시달려 온 금융권이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대거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 대상자는 83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 진행 중인 희망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연내 1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16개사 중 15곳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감축된 인원은 총 3359명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씨티은행(410명), 기업은행(360명), SC은행(347명), 신한은행(3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티은행은 최근 무려 65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씨티은행의 전직원 4240명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약 730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30명 정도는 회사 측의 반대로 희망퇴직이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에는 한참 은행에서 일을 해야 할 과장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 대거 지원했다. 실제로 희망퇴직자 650여명 가운데 부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232명, 일반 직인 지점급 이하는 430명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한파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초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전체 62개 증권사 가운데 20개사가 총 3361명을 내보냈다.

증권사별로는 동양증권이 65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줄였고 NH금융지주에 인수된 우리투자증권(431명)도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403명), 한화투자증권(329명), 대신증권(302명) 등의 순이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까지 감안하면 증권업계에서 내몰린 구조조정 대상자는 4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형 보험사들 역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56개사 중 17개사에서 1708명이 감원됐다. 이 가운데 교보생명(500여명)이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404명), 한화생명(301명), 알리안츠생명(20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전문가 82% "기준금리 인하할듯"

국내 채권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채권 전문가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7%는 이달 기준금리(현재 연 2.50%)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한은이 공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등을 둘러싼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8월 채권시장 투자심리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00.8로 집계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추가적인 인하 신호 여부가 향후 금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서울 중대형 전셋값 중소형보다 더 올라

8년 만에 격차 벌어져

지난해 중소형보다 중대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르면서 둘간 격차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벌어졌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8월 1주 기준 서울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전세가는 938만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040만원으로 10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전세가는 2006년 154만원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작년 85만원까지 좁혀졌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형 3.3㎡당 전세가가 331만원 오른 사이 중대형은 262만원 상승에 그치면서 간격이 좁아든 것이다.

그러다 올 들어 중대형(3.3㎡당 119만원)이 중소형(3.3㎡당 102만원)보다 전세가 오름폭이 더 커지면서 8년 만에 격차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를 비롯해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 총 11곳에서 중대형 전셋값 상승폭이 중소형보다 컸다.

종로구는 중소형이 3.3㎡당 100만원 오를 때 중대형은 140만원 뛰었고, 영등포구도 각각 78만원, 110만원으로 중대형이 32만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역시 중소형 전세가는 98만원, 중대형은 126만원의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구도 타워팰리스, 역삼아이파크 등에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3.3㎡당 중소형 전세가가 140만원, 중대형은 158만원으로 중대형이 18만 원 더 상승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계속된 전세난으로 중소형의 전세가 부담이 높아진데다 전세물건 품귀로 계약도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덜 오른 중대형 아파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중소형과 중대형의 3.3㎡당 전세가 격차는 당분간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선옥기자

뇌의 비밀을 밝혀라! 황창규 KT 회장(두번째줄 가운데)이 12일 KT-아이와이어(EyeWire) 협력 조인식에서 세바스찬 승 프린스턴대 교수(두번째줄 오른쪽서 네번째), 신희섭 기초과학연구원 단장(두번째줄 오른쪽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와 참석한 대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개발 마무리 택지지구, 분양 막차 인기

입주 초기 기반시설 미비 등 불편함 없어

입주와 동시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완성형 택지지구'가 눈길을 끈다.

택지지구의 경우 쾌적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성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입주 초기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뒤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입주 즉시 택지지구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분양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작년 9월 광교신도시에서 나온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 아파트에는 356가구 분양분에 603명이나 몰린 바 있다. 신분당선 경기도청(2016년 예정), 개통, 롯데아울렛(2015년 예정) 준공 등이 영향을 미쳤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완성형 택지지구 내 공급이 봇물을 이룬다.

반도건설은 오는 9월 경남 양산신도시에서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6차'를 분양한다. 양산신도시는 지난 2001년 1단계 구간 완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만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양산시청을 비롯해 이마트,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하철 2호선 등의 인프라가 구축됐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미 교통·교육시설이 갖춰졌을 뿐 아니라 산업지역과도 가까워 입주 시점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같은 달 경남 창원시 유현택지개발지구에서 '창원 마린 2차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현지구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나 신호지방산업단지 등 남쪽에 조성된 산업단지 등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된 택지지구다. 이미 8개 단지에서 7000여 가구의 입주가 마무리됐다.

대원도 오는 11월 충북 청원 오창2과학산업단지에서 대원칸타빌을 분양할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화학 등 전기·전자 제품 등 첨단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1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04년부터 14개 단지에서 8000가구 이상 입주를 완료했다. 지난해 2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9년여 만에 재개됐다.

현대산업개발은 8월 중 수원시 권선지구 7블록에 수원 아이파크시티 내 마지막 아파트 분양 물량인 '수원 아이파크 시티4차'를 선보인다. 앞서 1차 1336가구, 2차 2024가구, 3차 1152가구 등 총 4512가구가 공급됐다. 주변 지하철역·편의·교육시설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선옥기자 (…)

서비스업 대못 뽑아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새로운 해외 시장을 창출하고자 법·제도를 정비한다. 제한적인 영역에서 독점적 이익을 보던 분야에 대해선 규제의 벽을 허무는 파격도 선보였다. 분야별 대책을 살펴본다.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핵심목표

분야	대상	2013년	2017년
보건·의료	외국환자 (연환자)	21만명 (65만명)	▶ 50만명 (150가구명)
콘텐츠	해외관광객	1,218만명	▶ 2,000만명
교육	우수 외국대학 유치 (분야별 세계 20위권)		▶ 3개 유치
금융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6.7% (2012년)	▶ 8.0%
물류	물류산업 매출	92조원	▶ 135조원
소프트웨어	SW 수출	40억달러	▶ 70억달러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증시 가격제한 폭 15→30%로 확대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상장 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IPO) 관련 각종 규제도 사라진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15%의 가격제한폭은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코스닥과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도입과 맞물려 추진된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체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또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역차별을 철폐할 전망이다.

먼저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도 허용된다. /김현정기자 h.kim@

유망 서비스산업 3년간 3조 지원

다음달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100% 면제되는 등 앞으로 유망 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각 산업분야의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복지부가 조성한 제약·의료산업 육성 펀드와 '글로벌 제약펀드 1호' 처럼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구조다.

이와 함께 우수창업 기술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100% 면제되며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 도입돼 유망 기업과 창업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내년 중순까지 공용 TV홈쇼핑 채널 한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용 TV홈쇼핑은 10~20%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춰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방송 홈쇼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SW) 융합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서예원 백아란기자 yeeun@

영세 기업도 퇴직연금 가입

앞으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내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정부가 정한 방향은 우선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민준기자 minju@

국내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광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환자 국내 유치, 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관광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DC는 2013년 초 싼얼병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미비한 점을 보완했으며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를 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제주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해 해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쉬운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게다가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 등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해외 환자 수를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펀드 등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광 인프라 개발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그동안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이 어려웠던 카지노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 유치할 방침이며 환경 훼손 우려로 중단됐던 케이블카 증설도 주요 산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황혜영기자 kcm338@

'자금난'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법원 한달 내 최종 결정··미래부 채권단·이통사에 책임론 거세

채권단의 워크아웃 재개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던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팬택은 1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동사와 대리점 등에 법정관리 신청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법정관리 신청 법원의 선택은?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달 24일 이동통신사가 채권 1530억원의 2년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했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가결,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더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최종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주일 내에 팬택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하고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팬택은 비사은엠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이미 고갈된 상황이다. 지난달 두차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만기도래 전자채권 360억원마저 연체중인 상황에서 이달 중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440억원 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근본 책임은 팬택 경영진에 있겠지만 이동사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적극적인 지원을 거부한 채권단, 단말기 수급을 거부한 이통사 등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며 상거래 채권 역시 감면되는데 이렇게 되면 550여개의 협력사들은 팬택에 공급했던 부품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팬택 협력사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팬택 협력사협의회는 팬택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품 대금 10~30%를 삭감하기로 결정하고 팬택이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소용없게 됐다.

한편 이번 팬택 법정관리 사태로 통신시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3위 제조사인 팬택이 제외되면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경쟁도 떨어져 단말기 가격 하락 요소 등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사가 시장 논리를 앞세워 팬택에 더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것이 향후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단말기 가격 하락 요소도 사라지는 한편, 제조사의 독과점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셀카봉·방수팩 챙기셨나요?

여름 휴가철 재미 더하는 IT 제품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가운데 피서의 재미와 안전을 더하는 IT제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낯선 사람에게 사진 촬영 부탁을 안 해도 되는 '셀카봉'은 웃어른 최고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셀카봉을 이용해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셀카봉은 특수 막대기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고, 음성 인식 또는 블루투스 리모콘을 이용해 사진 촬영 버튼을 원격으로 조정하게 한다. 셀카봉은 거리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셀카뿐 아니라 단체사진도 편리하게 찍을 수 있다. 가격은 1만원 내외다.

방수팩은 물놀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투명 방수팩에 스마트폰을 넣고 밀봉한 채 허리춤 또는 목걸이로 매어 놓으면 침수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방수팩 착용 상태에서 통화와 게임, 사진 촬영 등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수팩도 나왔다. 방수팩은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태블릿PC 등 종류별로 출시되고 있으며 값비싼 디지털 기기를 피서지에서 안전하게 휴대하고 싶은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여름 휴가지에서 어린 자녀의 신변이 걱정된다면 통신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위치추적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좋다. 최근 통신3사는 위치추적 기반의 보신용 어린이 디바이스를 속속 출시했다. 어린이가 이 기기를 손목에 차고 있으면 자녀의 위치와 거리 이탈 여부가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내장된 긴급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경찰서에 호출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unique@

삼성전자 아티브 북 M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소형 노트북 '아티브 북 M'을 출시했다. '아티브 북 M'은 A4 용지보다 작은 29.5cm 크기의 HD 디스플레이와 1회 충전 후 최대 8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해 휴대하기 편리하다. /삼성전자 제공

"中 내수시장 진출 강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지적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 노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고속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중속성장시대로 연착되고, 경제환경도 ▲소비중심의 성장 ▲산업구조 소섬 및 고노화 진행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화 ▲기업관련 법제도 강화 등으로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태균기자 ksun@

실 투자금 4000만원대 '아크로텔 강남역'

강남역에 위치한 '아크로텔 강남역' 오피스텔이 뛰어난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대림산업과 삼호에서 시공을 맡았으며, 전체 470실 규모다.

강남역 일대는 삼성타운에 이어 신분당선 강남역 개통으로 분당·판교 연구까지 유입되면서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오가는 곳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삼성타운의 2배 규모로 개발되는 롯데타운 등의 계획으로 여전히 수익형부동산 투자처로 선호되고 있다.

'아크로텔 강남역'은 이 같은 조건의 강남 중심에 입지한 브랜드 오피스텔임에도 기존 역세권 오피스텔 가격보다 최대 5000만원까지 저렴한 1억원대부터 분양가를 책정했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해 준공 시까지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LTV완화와 대한주택보증의 오피스텔 보증제 실시로 실투자금 4000만원대로 계약이 가능하다.

1인 가구를 배려한 에어컨·냉장고·세탁기·쿡탑 등의 고급 빌트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 계절 창고가 배치된다. 하늘정원, 게스트룸(공용)과 같은 입주민 커뮤니티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역세권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4%대임에도 투자자들이 꾸준히 몰리는 데는 공실 걱정 없는 두터운 수요층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81-5034 /박선옥기자

"대리급 때부터 미래를 준비하라"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허현 HR코리아 대표

컨설턴트와 지속적 교류 필요
스스로의 가치 확인해 봐야
농축된 정보 멘토링도 유용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5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삼성 등 국내 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재사관학교'로 유명한 헤드헌팅 전문업체 HR코리아의 허현(52) 대표는 대리급일 때부터 헤드헌터로 불리는 커리어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내지위가 흔들린다는 위험을 감지한 후 준비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지적이다. 이직 생각이 당장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에서 담당분야 커리어컨설턴트를 찾아 직접 만나보면 인터넷이나 인맥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농축된 업계 정보는 물론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허 대표는 설명했다.

"이직을 의뢰한 사실이 다니는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보안 스킬을 지니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비용이 들지 않을까 모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후보자가 내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커피값 같은 작은 비용이라도 혹시 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컨설턴트이니 바로 해당 회사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허 대표가 이처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헤드헌팅 업무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회사와 후보자 모두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덕분에 매년 200~250명에 달하는 인재들이 HR코리아를 통해 새 삶을 찾고 있다.

◆강소기업 수요 갈수록 늘어

헤드헌팅을 주로 의뢰하는 곳은 중견·중소기업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들이다. IT관련 업종이나 R&D, 해외사업 등 전문성이 강한 직무일수록 헤드헌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살인적인 구직난이라고 하지만 강소기업들의 구인난 또한 못지않습니다. 취업포털 등에 이력서가 넘쳐나고 있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지고 있죠. 해당분야에 대한 인맥은 물론 전문지식까지 갖춘 커리어컨설턴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허 대표는 스스로도 헤드헌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개척한 케이스다. 25년 가까이 다녔던 대기업에서 퇴임 후 허 대표는 재직시절 가장 흥미 있었던 인사부서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커리어컨설턴트로 나섰다.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했지만 대기업을 다니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 덕분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커리어컨설턴트 생활 7개월 여만인 지난해 7월 HR코리아 대표직 제의를 받고 취임하는 기염을 토했다.

◆3년 이상 경력 쌓아야

허 대표처럼 헤드헌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이 좋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철저한 준비가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연봉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으로 커리어컨설턴트와 접촉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허 대표는 자신의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남들로부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메트로신문 독자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도 남겼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우연히 모 그룹 회장을 만나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편한 고급 자동차를 놔두고 복잡한 지하철을 오른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어 가끔 이용한다'고 답하더군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면 이처럼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신이 준 선물'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본다면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현대차그룹 '대학 공연예술 경연대회' 개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린 '제2회 H-스타 페스티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현대차그룹과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문화예술단체가 후원했다. /현대차그룹 제공

대리-업무연관성, 차장-전문성

직급별 이직 성공 노하우

이직에 성공하려면 경력기술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취업포털 사람인은 기업 243개사를 대상으로 경력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전형 절차를 물은 결과 '경력기술서'(32.9%)가 1위에 꼽혔다. '인성면접'(17.3%), '이력서'(16.1%), '성과 포트폴리오'(4.1%), '인적성검사'(2.5%),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2.5%) 등이 뒤를 이었다.

평가기준은 직급별 차이가 컸다. 대리·과장급을 채용할 때는 '이전 경력의 업무 연관성'(38.7%)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대답이 많았다. '전문성 능숙 수준'(34.2%), '조직문화 성향 부합도'(8.6%), '실적 성과'(5.8%), '폭넓은 경험 보유'(4.1%) 순이었다.

차장·부장급은 '전문성 능숙 수준'(4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적 성과'(14.8%), '폭 넓은 경험 보유'(12.4%), '조직문화 성향 부합도'(11.5%), '이전 경력의 업무 연관성'(10.7%) 등도 거론됐다.

임원급은 '폭 넓은 경험 보유'(19.3%)를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성 능숙 수준'(16.5%), '실적 성과'(15.6%), '인맥 보유 수준'(13.2%), '조직문화 성향 부합도'(10.3%), '업계 및 사회적 평판도'(9.5%)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국명기자

구직자 '학벌' 고집 여전

잘못된 취업정보 때문

구직자들의 스펙에 대한 맹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탈스펙' 바람과는 반대방향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활동 중인 435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물은 결과 '학벌'(3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능력(33.3%), 대외활동 등 경험(29%)보다 높은 수치다.

이처럼 구직자들이 최근 취업트렌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잘못된 취업정보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이 취업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 취업카페(38.4%)가 대학 취업지원실(14.3%), 기업이 실시하는 채용설명회(2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 최창호 본부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명 '~카더라' 통신에 따른 잘못된 정보 습득으로 인해 많은 구직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며 "스펙을 앞세운 채용준비로는 하반기 좁은 취업문을 뚫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직장인 87% '나는 필수 인력'

대다수 직장인들은 스스로를 직장 내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532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가 '불필요한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뽑은 불필요한 직원 1위는 '업무 역량이 부족한 사람'(62.9%), 2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24.6%)이었다. 응답자의 73.7%는 불필요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퇴사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장윤희기자

헬로키티' 아이스크림과 커피 선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대표 노일식)이 13일 '헬로키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뚜루팝에 놀러온 헬로키티' 콘셉트의 매장을 선보인다. 또 스트로베리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속에 하트모양 초콜릿을 넣어 달콤한 맛을 강조한 아이스크림 신제품 '숨겨왔던 헬로키티의 고백'과 '헬로키티 아이스크림 케익'도 출시했다. /나뚜루팝 제공

"숲길 산책 후 빙수 한 그릇 어때요"

더위 피해 도심 호텔서 삼림욕과 디저트를

도심 속 숲에 자리 잡은 호텔은 여유를 만끽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여름철 색다른 피서지다. 정신좌 작용을 하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긴 후 호텔에서 준비한 서머 디저트를 맛보는 것은 어떨까.

◆산책은 물론 트레킹, 전시 관람까지

양재시민의 숲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탁 트인 하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10만 그루가 넘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 서울 최고의 도심 숲이다. 또 메타세쿼이어 길과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 이곳에서 산책을 했다면 인근의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색다른 빙수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트레킹 도로를 연결하는 한적한 산책로도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서 여름을 맞아 신선한 팥과 쫄깃한 인절미를 얹은 팥빙수와 부드러운 크림과 바삭한 쿠키를 곁들인 쿠키&크림 빙수 등을 선보였다. 또 이탈리안 정통 디저트인 카놀리 3종과 유자·자몽 주스 등이 몸과 마음의 충전을 돕는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안에 위치한 광진구 워커힐 길은 워커힐 호텔 뒤쪽부터 아차산 생태공원입구까지 이어진 가로수 길이다. 나무 데크로 조성돼 유모차를 가지고도 산책하기 좋으며 아차산 올레길 이서의 트레킹도 가능하다. 또 산책 후에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다이닝&카페 더뷰에서 보평을 직접 선택해 나만의 빙수를 만들 수 있다. 얼음 위에 올라갈 토핑과 당도를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셰프가 고른 재료들로 맛있는 빙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는 자연관경 속에서 미술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조각공원 길이 있다. 박현옥의 '피리 부는 여인', 김창희의 '쌍 무지개' 등 진귀한 조각 상들을 본 후 서울 성곽과 연결된 길을 걸으며 서울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 또 여기서는 서울 신라호텔의 애플 망고 빙수가 최고의 인기다. 부드럽게 갈아낸 우유 얼음과 제주산 애플망고를 쌓고 호텔에서 직접 만든 망고 셔벗과 국내산 팥을 따로 곁들여 즐길 수 있다.

아울러 복잡한 강남지역에 위치한 서리골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 서리풀 공원도 여름철 산책에 적합한 곳이다.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래마을 근처라 이국적인 풍경도 덤으로 즐길 수 있다. 게다가 근처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로비라운지에서 망고·블루베리 등 2종의 과일 빙수와 코코넛, 치즈 케이크 등 색다른 재료로 만든 이색 빙수 2종 등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친 수험생 '뇌' 건강식은?

집중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추는 제품 선택을

농심 켈로그, 돌코리아, 청정원 카레여왕 (왼쪽부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장기간 이어온 학업에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는 정신력과 체력을 모두 떨어 뜨린다. 남은 기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똑똑한 식단과 건강관리, 휴식조절 등으로 두뇌 컨디션을 최고조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두뇌활동을 돕는 식품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영양 높은 식사와 간식은 필수적이다. 식단은 DHA 함량과 단일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통곡물과 과일, 뇌세포 활성화 성분을 함유한 카레 등 두뇌건강과 포만감 모두를 만족시키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켈로그의 그래놀라 시리얼 2종인 '크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와 '코코넛 그레이프 그래놀라'는 고소한 곡물과 함께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가 들어 있어 수험생 두뇌 활동을 돕는 영양간식으로 제격이다.

수험생의 뇌혈관 순환을 촉진하며 다량의 비타민C성분을 함유한 유자를 이용한 간식도 소개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유자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유자 블렌디드 주스'를 선보였다. 국내산 유자와 얼음을 함께 갈아 보다 시원하고 상큼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돌(Dole)코리아가 출시한 견과류와 건과일로 만든 프리미엄 테일러넛 '후룻&넛츠 골드라벨'은 수입한지 180일 미만의 고급 품종과 높은 등급의 신선한 견과류 건과일만을 사용해 수험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다.

뇌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커큐민 성분을 지닌 카레도 수험생에게 좋은 식품이다. 청정원의 '카레여왕 로얄 스파이스' 3종은 레드스파이시·옐로커리미·브라운리치로 구성됐다. 27가지 향신료를 배산을 쇠고기 닭고기 같은 주재료와 어울리도록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레스·우울증 예방 식품

심리적으로 압박 받는 수험생의 식사나 간식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C, 심장건강에 좋아 심신을 안정시키는 오메가 3 등의 영양성분이 담긴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어는 심장 건강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코카콜라사의 음료 브랜드 미닛메이드의 '미닛메이드 5얼라이브'는 당근과 4가지 과일을 블렌딩한 신제품이다. 칼로리는 낮고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정현일기자

강강술래, 추석선물 '예약 할인전'

20일까지 … 리솜리조트와 힐링스파 이벤트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 중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예약기간 구매 시 10% 추가 할인혜택을 주는 '추석 선물 예약 할인전'을 20일까지 벌인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900원, 한우불고기2호(1.5kg) 6만3600원, 강강양념1호(16대) 8만1000원에 판매한다. 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는 8만1000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는 11만7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는 16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우정성1호(등심+국거리+불고기-각0.7kg, 13만5000원)와 한우정성2호(등심1.4kg+국거리0.7kg, 17만1000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안심0.7kg, 21만6000원) 등 한우프리미엄세트도 초특가로 선보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실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900㎖ 5팩, 15인분)는 3만4920원, 소용량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50원에 제공한다.

한편 강강술래는 리솜리조트와 손잡고 30일까지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올리면 총 50명을 추첨해 서울에서 90분 거리에 위치한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스파 온천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신혜선기자 hyun@

돈도 벌고 스펙도 쌓고… '공모전' 한창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각 업체와 기관의 공모전이 한창이다.

각 공모전은 직장인들에게는 평소 즐기지 못했던 문화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자기계발은 물론 스펙쌓기의 일환으로 남다르게 '값진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따라오는 상금이나 상품은 덤이다.

먼저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는 오는 20일까지 '2014 프링글스 썸머 챌린지 공모전(사진)'을 연다.

건강식품 브랜드 '정관장'은 '氣(기)찬 슬로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연다. '믿을 수 있는 평생건강 솔루션'과 KGC인삼공사의 비전인 '글로벌 종합 건강기업'이 잘 표현되도록 하면 된다.

생활용품 브랜드 '애경'은 오는 25일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을 벌인다.

뉴웨이코리아는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늘음료 홍보를 위한 'CM송 공모전'을 9월 30일까지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31일까지 '꿈과 희망을 담은 우편환 사진 공모전'을 연다. /정영일기자 omw@

유통업계, 외래어 혼합 브랜드 눈길

브랜드 성격 강조… 인지도·매출 증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가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네이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랜드 작명은 인지도나 매출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30%나 될 정도로 중요하다"며 "앞으로 브랜드 이름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브랜드들이 영어 이름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 성격을 강조하는 다양한 언어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순둥이 물티슈 생산기업 (주)호수의나라 수오미에서 '수오미'는 핀란드어로 '호수의 나라'라는 뜻이다. 또 핀란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하다. 호수의 나라 수오미는 '자연에서 자연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수오미를 기업명으로 정한 것. 또한 이 회사에서 만드는 순둥이 물티슈는 경영철학에 맞게 안정성을 인정받아 영국 독일의 더마테스트에서 피부자극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일본식 캐주얼 레스토랑 아리가또 맘마는 일식 프랜차이즈라는 콘셉트에 맞게 일본어 브랜드명을 사용했다. '고맙다'는 뜻의 '아리가또'와 '밥'을 뜻하는 '맘마'를 혼합한 것으로 일본의 대표 먹거리 지역인 '오사카' 풍을 재현한 캐주얼 레스토랑이다. 이 회사는 브랜드명뿐 아니라 메뉴, 인테리어까지 차별화해 한국 안의 작은 일본을 구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둘 이상의 외래어를 혼합해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다.

LG생활건강의 이자녹스는 프랑스 여성의 애칭으로 많이 쓰이는 이사벨의 약자 '이자(ISA)'와 범의 여신이란 뜻의 라틴어 '녹스(KNOX)'가 합쳐진 것으로 우아하고 열정적인 여성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명의 의미에 맞게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노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모리는 영어로 '멋진', '맵시 있는'이라는 의미의 '토니(Tony)'와 담는다는 의미를 가진 일본어 '모리(Moly)'의 합성어다. 회사 측은 '아름다움을 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이준기자 ssj@metroseoul.co.kr

왼쪽부터 호수의나라 수오미 순둥이, 이자녹스, 토니모리

"올 가을은 블랙이다"

여배우들 스타일 화보로 만나는 패션 트렌드

패션 브랜드들이 본격적인 가을·겨울 시즌을 앞두고 스타일 화보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화보 속 여배우들의 옷차림을 보면 올가을 트렌드가 보인다.

쉬즈미스는 전지현의 그윽한 눈빛이 돋보이는 화보를 선보였다.

검정색 재킷을 입은 전지현은 자연스럽게 날리는 머리카락과 세련된 포즈로 남다른 카리스마를 뽐냈다. 특히 올 상반기 '천송이 코트'로 화제를 모았던 전지현은 브라운 컬러의 트렌치코트에 가죽 레깅스를 매치, 더욱 세련된 트렌치코트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원조 요정' 성유리는 '강한 여성'으로 변신했다.

성유리는 여성 캐주얼 브랜드 현성의 패션 화보에서 장렬한 록시크 스타일부터 깔끔한 오피스 룩까지 두루 소화했다. 특히 매니시한 올블랙 패션으로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에서 탈피, 카리스마 있는 색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또 다른 화보에서는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와인 컬러의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보여줬다.

브루노말리의 뮤즈로 활동중인 박신혜도 최근 가을·겨울 시즌 화보 촬영을 마쳤다.

박신혜는 기존의 청순함 대신과는 상반된 섹시하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에 과감한 커팅이 들어간 스커트, 블랙 라이더 재킷을 입고, 같은 톤의 가방을 들어 시크함을 발산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시즌 스타일 화보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여배우들의 팔색조 매력과 함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며 "올가을에는 블랙·그레이·와인 컬러로 차분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교복 상한가 '찬성', 개별생산 금지 '반대'"

교복協 "학교주관구매제 검증·안정장치 마련 후 시행 필요"

교복업계가 입을 열었다. 교복에 상한가를 두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 업체만이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토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회장 진상준)는 12일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별관에서 교육부가 2015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한 '학교주관구매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시급한 제도 개선과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복협회는 '학교주관구매가 생산공장 여건 등 사전 준비에 긴 리드타임이 필요한 교복 생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에 있어 '선 검증 후 도입', '합리적 검증과 소비자 동의' 등을 거쳐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주관구매 실시학교의 개별생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MOU체결을 강요했다'며 학교주관구매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 문승민 협회 전무, 유기종 대리점협력업계 대표, 김연희 봉제인지대표 등 교복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12일 한국교복협회가 연 '학교주관구매 최저가입찰제 이 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진상준 협회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진상준 협회장은 "교복업계는 전국 5200여 중·고교를 대상으로 남녀 교복 8000여종을 입학식 전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매 시즌 1년 전부터 각 학교에 맞는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학교주관구매제는 생산 현장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검증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내년 입학식에 맞춰 교복을 납품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교육부는 입는 시기를 늦추면 된다는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교복업 종사자의 대량 실업 사태와 영세 교복업자의 줄도산 위기 등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초 4월 말까지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어야 할 공장들이 현재 휴·폐업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영세 교복 대리점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월재고를 판매 한 번 하지 못한 채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유기종 대리점협력업체 대표는 "연간 매출이 10억원 정도인 매장에서도 매입가 기준 3억5000만원 어치의 재고가 쌓여 있다"며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방법마저 막힌 셈이다. 교복에 상한가를 두는 것은 맞지만 한 업체에서 한 학교의 교복만을 생산·판매토록 하는 것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유로타임, 현대百 울산동구점 오픈

카노코퍼레이션(대표 김건표)은 시계 셀렉샵인 유로타임(EURO TIME)을 지난달 29일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에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로타임은 이 회사에서 공식 수입하는 122년 역사의 미국 시계 브랜드 잉거솔(Ingersoll)과 독일 명품시계 브루노 죈르 글라슈테(Bruno Sohnle Glashutte), 여성시계 '페카앤벨(Feka&Bell)', 덴마크 시계 '대니시 디자인(Danish Design)', 이태리 조르지오 페돈 1919(Giorgio Fedon 1919) 등의 명품시계와 '알바(Alba)'·'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프레드릭 콘스탄트(Frederique Constant)·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등 다양한 브랜드를 구비해 놓고 있다.

회사는 이번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오픈을 기념해 시계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명의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잉거솔 USB를 증정한다.

/김학철기자

과일 성분 화장품으로 관리해볼까

여름철엔 보습 신경써야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땀으로 피부가 끈적여 보습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잦은 세안과 샤워로 인해 더 건조해지는 계절이다. 이럴 때 과일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 피부 관리에도 좋다.

레몬, 오렌지 등의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 개선 및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가꿔주면서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 때문에 여름철에 인기가 좋다. 에이크어 브랜드 파코의 레몬 젤 화이트닝 슬리핑 팩(사진 왼쪽)은 자는 동안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미백 기능성 슬리핑 팩이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돼 미백에 도움을 주며 레몬추출물과 8가지 복합추출물인 금국공녀팔백산추출물이 매끈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비타민C가 풍부한 사과 성분은 모공 수축 및 각질 제거 외에도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화장품 업계에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제니스웰의 '화이트닝 VC 세럼(가운데)'은 사과 추출물이 함유돼 브라이트닝과 항산화 작용 및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또 가장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체이자 빛과 열에 강한 'AA2G' 성분이 들어 있어 미백 작용도 한다. 이외에도 피부 보호 성분을 다량 가지고 있는 예덕백이스 추출물로 피부를 진정시킨다.

무화과나무 추출물은 뛰어난 보습력을 가진 자연유래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노 '포지티블리 너리싱 하이드레이팅 바디워시(오른쪽)'는 무화과나무 추출물과 쉐어버터가 함유돼 있어 여름철 잦은 샤워로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또 인공적이지 않은 무화과 그대로의 향을 느낄 수 있어 특별한 기분을 내기 좋다.

국립 의료원 인지영 피부과 전문의는 "여름 날씨는 가을과 겨울에 비해 온도와 습도가 높아 보습을 간과하기 쉽다"며 "야외활동이 끝난 후에는 피부 수분을 유지해주는 바디 워시 제품으로 샤워를 하고 깨끗이 세안 후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인기자 hyein0604@metroseoul.co.kr

B급 문화 '키치', 트렌드로 진화

최근 키치(kitsch)가 각종 문화 콘텐츠에서 핫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래 키치는 통속 취미, B급 문화를 일컬으며 인기는 있지만 질 낮은 예술품을 뜻했다. 요즘에는 위트와 독특한 개성이 있는 문화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키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패션이다. 키치 룩의 가장 기본은 여러 개의 패턴 아이템을 믹스매치하는 것. 알파벳 프린트나 기하학적인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깔끔한 팬츠나 스커트에 매치하면 일상 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서촌, 경리단길, 연남동 등 요즘 뜨는 동네 역시 키치한 정서를 담고 있다. 상업지역이 아니었던 이 동네들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며 허름한 곳이지만 특유의 멋을 살린 키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한 인디 음악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악 페스티벌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4'의 사전 할인 티켓이 오픈 10여 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정혜인기자 kasso@

서울 찾은 111마리 타오 인형들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칭타오 맥주의 캐릭터인 '타오' 인형들과 모델들이 타오의 반한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브랜드 탄생 111주년을 맞아 국내 맥주 시장 공략을 위해 캐릭터 타오를 활용해 보다 친근하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칭타오 맥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손진영기자 son@

도쿄도, '도쿄 크리에이티브웍스' 개최

일본 전통 문화·현대 예술 등 홍보

일본 도쿄도와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은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쿄 크리에이티브웍스 2014' 캠페인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1년 중 가장 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도쿄 문화발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도내 미술관, 영화관, 지역시설 등에서 일본 전통 문화부터 현대 예술까지 아우르는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대표적으로 ▲도내의 공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나노피안 도쿄 대다회 ▲현대 예술과 일본 전통예능을 융합한 일본의 전통예능×스트리트 댄스 ▲일본 대표 재즈 피아니스트 오조네 마코토가 출연하는 Music Weeks in Tokyo 2014 ▲우수한 비눗방울로 거리를 빛이 가득한 풍경으로 바꾸는 메모리얼 리버스 등을 선보인다.

캠페인 기간 중 문화예술시설이나 예술 문화 관련 서점 등 도내 16곳에서 각각 무늬가 다른 '특제 스티커'와 도쿄 모양의 '도쿄 클립'을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h-project.jp/kr/about/tabid/246/Default.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쿄 문화발신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문화창조 도시-도쿄'의 실현을 위해 도쿄도와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이 예술문화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세계연기자

도심 속 바다, 호텔 수영장 인기!

다양한 서비스 여름 휴가로도 제격

도심에서 바다나 계곡에 온 것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주는 호텔 수영장이 인기다. 가까운 곳에서 무더위를 잊고 휴가를 온 듯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야외 수영장에서는 절임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본떠 만든 기둥과 지중해 풍의 나무 테이블과 의자, 이자수 등으로 수영장을 꾸몄으며 비브버거, 샌드위치나 나폴리타나 피자를 야자 코코넛 열매 드링크와 함께 맛볼 수 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수영장은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듯 새롭고 아름다운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외 수영장과 어린이 전용 수영장, 월풀로 구성돼 있으며 수영장 뒤로는 남산의 푸른 녹음이 둘러싸고 있어 도심 속에서 조용한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게다가 푸른 잔디와 인공 폭포가 있는 풀사이드 가든에는 300여 개의 선베드가 마련돼 여유롭게 선탠을 할 수 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사진)도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를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한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국제 규격의 성인 풀과 시원한 물살이 느껴지는 유수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호텔 조리장들이 선보이는 풀 사이드 뷔페도 준비된다. 특히 변신 자동차 '또봇'으로 장식한 방갈로 형태의 '또봇 까발리온'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고 성인풀에는 수중 풀 바가 설치돼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는 오아시스를 연상케하는 콘셉트로 디자인된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가 있다. 돌, 나무 등 자연 소재로 제작돼 마음이 편안해지며 밤이 되면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한다. 또 독립된 작은 풀이 구비된 23개의 카바나는 독채 리조트 객실인 풀 빌라를 그대로 재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새로 나온 책

역사

선비의 아내 류정월/역사의아침

저자는 내조와 살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조선 여성들의 결혼생활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선비의 아내로 평생을 보내야 했던 평범한 조선 여성들의 일상을 추적하고 있으며 혼인 사랑 집에 대한 질투 등 다양한 주제를 문학 사료를 인용해 낱낱이 파헤친다.

인포그래픽 세계사

발렌티나 디필리포, 제임스 볼/민음사

책은 평범한 역사책이 아니다. 데이터광과 탐사 저널리스트가 만나 100개의 인포그래픽으로 데이터를 완성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태어나 생명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진화하면서 문명이 세워진 후 지금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재치있는 스냅 사진을 보듯이 만날 수 있다.

대중문화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김성률/한겨레출판

다양한 관점에서 인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은빛 역 길' 8번째 책이니, 책은 영화 안에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대로 재현돼 있는 장면을 소개한다. 저자는 영화라는 창을 통해 인천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고 있다.

경제/경영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김수영/체움카우

스펙을 쌓고 자기계발에 열중해 노후적 후에는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을 위한 책이다. 서른 전에 평생 쓸 돈을 모은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에 미쳐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다. 돈이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그의 인생사를 들어보자.

자기계발

마흔의 역전 신동일/리더북스

인생이 후반전에 들어가는 마흔. 자신의 숨은 감정을 찾아내 새 삶을 일궈낸 우리 이웃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인생 역전 스토리다. 의미 없는 경력 뒤에 감춰진 자신의 능력을 찾아 다시 일어선 11명의 인생을 통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오너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소설

사랑에 난폭 요시다 슈이치/은행나무

부부관계 사랑 결혼 그리고 집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니 식상할 수도 있는 불륜이라는 통속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저자 특유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장과 모티브면서도 긴장감 있는 분위기와 이야기가 결혼과 사랑의 의미를 관통한다.

취미

내 작은 집 디자인하기

와쿠이 가즈훈 함 편집부/디자인하우스

집의 개념이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를 벗어나 그곳에 사는 사람과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특색 없는 구조와 내부 동선 등 복잡한 문제로 내 집을 꾸미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이에 저자는 작은 집의 한계를 매력으로 바꾸는 법칙을 알려주고 있으며 각양각색의 14개 집을 소개해 다양한 집 바꾸기 노하우를 전달한다.

육아

느긋한 육아

존 블리크먼/이룸디은사람들

지고 넘치는 사랑은 과잉 육아로 이어지고 이런 과잉 육아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 않는다니. 이에 저자는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믿으며 잠자고 있는 모성센스를 깨워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문

괴짜 심리학 리처드 와이즈먼/와이즈베리

전 세계에 심리학 열풍을 일으킨 저자가 이번에는 삶에 당연한 듯 침투해 있는 통념에 대한 연구를 담았다니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법, 데이트에서 성공하는 비법 등 엄중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의 통찰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한다.

휴가철 권장 경제·경영 도서

조직 문화·경제 흐름 등 개괄하는 서적들 인기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 여름휴가는 현재진행형이다. 휴양지에서 읽을 만한 경제·경영서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10일 여름휴가 일정에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2014) 두 권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의 저자는 복지국가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스웨덴에서 25년간 교수로 생활하며 지켜 본 스웨덴의 정치 사회 교육 기업 노동 문화를 전달한다.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 관료조직의 문제를 분석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권을 지난 달 발표했다. 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도 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직접 골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나란히 출간된 '내일을 위한 경제학' '당신이 알던 모든 경제가 사라진다' '세상물정의 사회학' 등이 눈에 띈다.

'내일을 위한 경제학'은 일반인과 중 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경제 원리를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낸다.

'당신이 알던 모든 경제가 사라진다'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출몰하면서 시장 자체를 와해시키는 혁신에 대해 다룬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평사원의 마음을 담은 'Sorry CEO' 추천도서 란 주제로 4년째 여름휴가철 읽을 만한 도서를 소개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CEO 추천도서'를 패러디한 기획이다.

올해 알라딘이 추천하는 책은 '불평등의 대가' '고장 난 거대 기업' 등 24권이다.

'불평등의 대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불평등이 사회에 끼치는 비효율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고장 난 거대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지나쳐 소비자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김민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진짜 사랑 하고 싶다

오늘을 사는 청춘들에게 사랑은 참 난제다. 중년의 사랑 얘기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소재로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청춘만을 위한 물음은 아닌 듯 보인다. 노년의 즐거움을 위한 조건에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꼽힌다. '사랑하기'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일까. 그렇다면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세상 동안 힘듯 사랑하라', '혁신 제품인듯 사랑하라' 등의 조언만이 기억에 남는다. 사랑은 난제이자 숙명이니, 잘 헤어갈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 모던러브 (대니얼 존스/예문사) 中 – /김학철기자 kimc@

우리 모두의 사랑 이야기

화제의 책

감성제곱 이홍천/타임포인트

일상 속 사랑의 흔적 섬세하게 그려내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혼자 끄적이던 낙서에서 시작됐지만 카카오스토리를 개설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느덧 12만 회원이 받아보는 '에세이'가 됐다. 저자가 담아낸 이야기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스스로 '감성쟁이'라고 부르는 저자가 감성 넘치는 시선으로 그려낸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사실 제목처럼 감성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사랑,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을 감성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저자는

아련하고 따스한 사랑 이별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 속 사랑의 흔적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

현재 진행중인 사랑의 소중함과 의미, 지나간 사랑의 아쉬움, 앞으로 다가올 사랑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랑할 때 느끼는 설렘과 행복 다툼 아픔을 따스하고 사려 깊은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시간 내서 한 번에 쭉 읽어버리는 재미 있는 책이 아니라 감성에 젖고 싶을 때 문득 펼쳐서 한 페이지만 읽고 다시 덮어버리는 공감이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서 찾게 되는 그런 그리운 책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힘겨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 책을 꺼내 공감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 /장혜선기자 hjang0404@

영화 '해무'의 한·예·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예리(29)를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독립영화계의 유망주였던 그녀는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예리는 주위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연기와 작품만을 생각한다. 연기하는 것이 그저 행복한 천생 배우다.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한예리는 2012년 '코리아'로 상업영화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에는 '남쪽으로 튀어' '스파이' '동창생'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KBS 단막극 '연우의 여름'과 독립장편 '환상 속의 그대'에도 출연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

13일 개봉하는 '해무'(감독 심성보)에서는 단독 여주인공으로 김윤석·박유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해무'는 IMF 경제 위기가 들이닥친 이듬해인 1998년을 배경으로 밀항자들을 싣기 위해 바다로 나섰던 배가 해무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한예리는 소식이 끊긴 친오빠를 찾아 밀항에 나선 조선족 처녀 홍매를 연기했다. 캐릭터가 지닌 매력에 끌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

"홍매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시나리오에서도 홍매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인물이었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여자보다 속을 알 수 없는 여자에 관심이 더 가는 것처럼 매력적이었죠."

한예리는 홍매를 "선원들에게 던진 해무 같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 말처럼 홍매는 관객 입장에서는 불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캐릭터다.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만큼 홍매는 이기적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예리는 홍매를 연기하기 위해 그녀의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했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뒤 동식과 사랑을 나누는 베드신처럼 때로는 촬영을 하면서 홍매의 감정을 헤아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과 달리 강인함을 지닌 홍매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나 한예리는 홍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곧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해석과는 별개로 영화 속 홍매에 대한 판단은 관객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다.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무'는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수수께끼 같은 홍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캐릭터도 영화도 풍부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진행된 촬영은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해무'는 한예리에게 "좋은 사람"을 얻게 해준 경험이 됐다. 배우는 물론 스태프들까지 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겪은 끈끈함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도 더욱 많이 생겨났다.

최근 한예리는 같은 소속사 배우인 권율과 함께 한국영상자료원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배우로서 영화를 대하는 남다른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영화는 무용과 달리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큰 장점인 것 같다"며 "내가 찍은 영화도 다 기록으로 남기에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전공(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무용과 졸업)인 무용도 여전히 병행 중이다. '해무' 홍보 활동과 함께 오는 9월에 있을 무용 공연을 위해 연습도 한창이다.

2009년 독립영화 '바다 쪽으로, 한 뼘 더' 개봉 당시 한예리는 막 시작한 연기가 그저 행복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서서히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연기에 대한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다.

"예전보다 연기가 더 좋아져요. 더 재밌고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라도 제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어떤 작품이든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매력적인 캐릭터 애정 갖고 연기
끈끈했던 현장 열정·에너지 얻어
"다양한 해석 풍부한 재미 느끼길"

위너 이름값…'괴물 신인' 탄생

9개 차트 1위+톱10 줄세우기·뮤비도 화제

그룹 위너가 데뷔 앨범으로 음원 차트 줄세우기라는 괴력을 보였다.

위너는 12일 발표한 데뷔앨범 '2014 S/S'의 수록곡들로 엠넷·벅스·소리바다·지니·올레뮤직 등 주요 음원사이트 톱 10을 가득 채웠다. 또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공허해'는 9개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정상급의 가창 가수가 아닌 신인 가수의 데뷔 앨범 수록곡이 이른바 '차트 줄세우기'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빅뱅 이후 9년 만에 남성 신인 그룹을 선보인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서바이벌 프로그램 '윈 후 이즈 넥스트' 이후 데뷔 시기를 늦추며 오랜 기간 공들여 앨범을 작업해 온 노력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음을 차트 성적으로 증명했다"며 "총 10트랙이 수록된 앨범의 전곡에 멤버들이 작사·작곡으로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의미를 전했다.

위너의 데뷔는 각 음원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연예 관련 게시판 등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원 공개 후 '위너'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위너 공허해' '위너 컬러링' 등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머물렀다. 또 연예 관련 게시판에는 위너의 데뷔 앨범을 들은 팬들의 호평이 줄을 이었다.

음원과 함께 공개된 더블 타이틀곡인 '공허해'와 '컬러링'의 뮤직비디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곡 모두 이별의 슬픔을 얘기하지만 각기 다른 감성을 전달한다. '공허해'가 이별 후의 쓸쓸함을 담아내고 있다면 '컬러링'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절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멤버들은 두 편의 뮤직비디오에 모두 직접 출연해 신인답지 않은 능숙한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컬러링' 뮤직비디오에서 남태현이 보인 오열 연기가 화제를 모은다.

'공허해' 뮤직비디오는 지드래곤의 '쿠데타' '탑의 둠다다' 등을 만든 서현승 감독이, '컬러링' 뮤직비디오는 악동뮤지션의 '200%' 등을 작업한 윤이 감독이 연출했다.

한편 위너는 15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의 'YG 패밀리 콘서트'에서 공식 데뷔 무대를 연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2NE1 목소리 마이크로소프트 CF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수록

그룹 2NE1의 히트곡 '내가 제일 잘 나가'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광고 배경음악으로 선정됐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11일(현지시간)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 태블릿 SURFACE PRO3 홍보 영상 음악으로 사용됐다. TV에서는 6개월간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미디어 매체에는 1년간 홍보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인다.

2NE1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측은 미국 내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곡을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자신감 넘치는 가사와 신나는 비트가 SURFACE PRO3 이미지와 잘 어우러진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2NE1이 2011년 6월 발표한 곡으로 일렉트로닉과 힙합을 바탕으로 레게, 아프리칸 리듬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노래다. 발표 당시 2NE1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곡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국내외 음원 시장을 석권했다.

2NE1은 올해 정규 2집 '크러시'를 발표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에 61위로 진입하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두 번째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을 진행하며 해외 팬들과 만나고 있다. /유순호기자

AOA 일본 패션쇼 무대

걸그룹 AOA가 일본 패션쇼 무대에 선다.

AOA 일본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달 7일 마쿠하리 멧세 이벤트 홀에서 개최되는 '도쿄 런웨이 2014' 무대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출연한다. 약 100명의 인기 모델들이 패션쇼와 아티스트 라이브에 참여하는 '도쿄 런웨이'는 매회 약 1만5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인기 여성 패션쇼로 각광받고 있다.

AOA는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청받아 화려한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로 축하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한편 10월 싱글 '미니스커트'로 본격적인 일본 활동에 나서는 AOA는 한국 걸그룹 대표로 17일 일본 라이브 투어 '에이네이션' 무대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안방 사랑 트렌드 '싱글♥돌싱'

'기분 좋은 날' '사랑만 할래' '유혹'
"비현실적" "누가 말리나" 반응 다양

싱글과 돌싱의 만남이 안방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랑에 눈 먼 싱글은 사랑에 지쳐 돌아온 싱글을 보듬어 준다. 시청자는 "비현실적이다" "서나 총각이 아깝다" "사랑을 누가 말릴 수 있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손창민과 일일극 '사랑만 할래' 이규한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어한다. 월화극 '유혹'의 권상우는 그동안 보였던 미지근한 태도를 벗어 던졌다.

배우 김미숙과 손창민은 '기분 좋은 날'에서 유쾌하고 현실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돌싱 한송정(김미숙)은 싱글 남궁영(손창민)의 고백을 거절한 상태다. 남궁영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

지난 5월 드라마 간담회에서 김미숙은 "한송정은 이미 다 큰 딸이 있는 이혼녀고 남궁영은 자유분방하다. 순진하게 다가오는 이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힘들게 사는 여성들에 힘 낼 수 있을 지 아니면 그들에게 독이 될 지 아직 모르겠다. 상식적인 정서로 우정 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BS 일일극 '사랑만 할래' 남보라·이규한은 풋풋한 연애를 한다. 남보라는 작품에서 10대 시절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김샛별을 연기한다. 패션계 재벌인 최재민(이규한) 실무와 사랑하는 인물이다. 현재 싱글 최재민은 돌싱 김샛별과의 결혼을 허락 받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가족들은 "창피해서 말하기도 싫다"고 반대하지만, 그는 "자신감 가지고 오빠만 믿어라"고 김샛별을 보호한다.

권상우-최지우의 만남은 아슬아슬하다. 차석훈(권상우)은 SBS 월화극 '유혹' 5회(11일)에서 아내와 이혼했다. 돌싱이 된 그는 직장 상사 유세영(최지우)과의 애매한 관계도 정리한 채 브라질로 떠났다. 그러나 출국 직전 "첫사랑이다"는 유세영의 고백에 "우리 악연은 끝나지 않았다. 기다려 달라"고 여운을 남겼다.

인물들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극 전개가 탄력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돌싱 차석훈과 싱글 유세영이 불륜이라는 오해를 씻고 시청자를 '유혹' 할 수 있을 지가 작품의 관전 포인트다.

/정혜진기자 [illegible]

tvN 물오른 로맨틱 판타지
잉여공주
Ready
취준생
미스터리 셰프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
온주완

'비정상회담' 줄리안 DJ로 변신

글로벌개더링' 무대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 벨기에 대표로 활약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무대에 선다.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2014' 측은 "이디오테잎·DJ 쿠 안&줄리안 외 21팀이 새로운 아티스트로 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이태원 등지 클럽에서 DJ로 활동 중인 줄리안은 이번 행사에 안&줄리안이라는 팀으로 참여한다.

안&줄리안과 함께 라인업에 추가된 이디오테잎은 한국 일렉트로닉 뮤직신에서 독보적인 발자취를 그려오고 있는 팀. 제9회 '한국대중음악시상식'에서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최근 [illegible] 쇼케이스 무대에 서는 등 대중적으로도 왕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DJ 쿠로 활동 중인 구준엽은 매년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댄스 뮤직 페스티벌에서 3년 연속 한국 대표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DJ로 발돋움 했다. 최근 예술리 아나가 참여한 '더 미닝 오브 라이프' 역시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2014'는 오는 10월 4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앞서 크루엘라·나이프파티·다다라이프 등이 라인업을 확정했다.

한편 '글로벌개더링'은 영국에서 시작한 뮤직 페스티벌로 라이브 하우스·트랜스·덥스텝 등 다양한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장르를 다루며 세계 일렉트로닉 음악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illegible]

tvN 새 일요드라마 '삼총사' /CJ E&M 제공

'삼총사', 웰메이드 드라마 예약

'나인'의 주역 김병수PD·송재정 작가·이진욱 합작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제 드라마로 작품성 높인다

지난해 시청자는 물론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은 tvN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의 김병수 PD·송재정 작가·배우 이진욱이 '삼총사'로 다시 뭉쳤다.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tvN 새 일요드라마 '삼총사'의 제작발표회에는 배우 정용화·이진욱·양동근·정해인, 김병수 PD·송재정 작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 계획된 시즌제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과 소현세자의 실록 기록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조선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양에서 무과에 도전하는 강원도의 가난한 양반가 출신 박달향(정용화)이 자칭 '삼총사'인 소현세자(이진욱)와 그의 호위무사 허승포(양동근)·안민서(정해인)를 만나 조선과 명-청 교체기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오가며 펼치는 액션 로맨스 활극이다.

이날 송 작가와 김 PD는 캐스팅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송 작가는 소현세자 캐릭터는 이진욱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밝혔다. 그는 "작가와 감독은 금광을 캐는 광부 같은 사람들"이라며 "배우라는 원석이 보이면 탐욕스러울 정도로 캐낸다. '나인' 당시 이진욱을 만났을 땐 금맥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배우에게 미안할 정도로 팠는데 더 남은 게 있더라. 더 파고 싶다"고 밝혔다.

김 PD는 "시즌 당 12회씩 3개 시즌, 총 36회를 함께 할 배우들을 찾았다"며 "소현세자의 경우 시즌1과 시즌3에서 다르게 보여야 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인데 이진욱이 적임자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하는 양동근은 "대사가 입에 착 달라붙는다"며 "마치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는 사람도 연기하는 사람도 즐거운 캐릭터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역할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진욱은 "양동근의 사극 연기를 모두들 기대했다. 감독님도 배우들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며 "조선시대에 태어났어도 됐을 사람"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삼총사'는 오는 17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영국 밴드 마마스건 내한공연

9월 발매 '칩 호텔' 수록곡 공개

영국 출신 5인조 밴드 마마스건이 오는 9월 26일 서울 광진구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단독 내한 공연을 갖는다.

마마스건은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세션 연주자·프로듀서·작곡가·음대 교수가 모인 팀으로 멤버 앤디 플랫츠는 한국 가수 존박의 '폴링' 작곡, 박효신과의 협업 등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1~2013년 렛츠록 페스티벌 무대로 국내 음악팬들을 만난 바 있는 마마스건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9월 발매 예정인 3집 '칩 호텔'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마마스건은 지난 2009년 소울·펑크를 기반으로 한 재즈·팝·록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아낸 첫 번째 음반 '루츠 투 리치스'로 평단의 극찬 속에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2011년엔 2집 '더 라이프 앤드 소울'을 발표, 애시드재즈와 레트로소울 장르의 최종 진화형 밴드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위치를 다졌다.

최근 공개된 '칩 호텔'의 첫 번째 싱글 '레드 카세트' 역시 영국 BBC 라디오 주간 방송횟수 1위를 지시하는 등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마마스건의 내한공연 티켓 오픈은 14일 오후 2시다. /[illegible]기자

박신혜 중국 팬미팅 성료

한류 퀸 입증…아시아투어 계속

배우 박신혜가 중국 5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신혜는 지난달 26일 상해를 시작으로 3주에 걸쳐 중경·심천·장사·북경까지 중국 주요 도시 다섯 곳에서 팬미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공연을 늘려 토크와 쇼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박신혜의 매력에 관객들은 "박신혜 사랑해요"라고 화답했다.

특히 지난 9~10일 중국 장사와 북경 공연에선 스탠딩에그의 곡을 리메이크한 '넌 이별 난 아직'을 휘파람과 함께 라이브로 불렀다. 박신혜는 무대에서 직접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발된 팬에게 직접 주고, 객석의 팬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사진들은 박신혜의 웨이보에 게재됐다.

중국 현지 공개자는 "중국 도시 다섯 곳에서 단독 팬미팅을 연 박신혜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따뜻한 미소와 진정성있는 자세로 공연을 하는 모습을 통해 박신혜가 해외에서 사랑 받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신혜는 현재 '2014 스토리 오브 에인절'로 아시아 투어 중이다. 일본과 중국 공연을 마친 그는 다음달 대만과 태국, 10월엔 싱가포르에서 팬미팅을 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대작에 맞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영화

'터널' '내 연애' '족구왕', 3D·복합장르·이색 소재로 도전장

최근 극장가는 한국영화 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제작비와 멀티 캐스팅을 내세운 작품들이 관객들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들 대작들 사이에서 규모는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작품들이 개봉을 준비 중이다. '터널 3D'와 '내 연애의 기억', 그리고 '족구왕'이 그 주인공들이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터널 3D'(감독 박규택)는 최초 풀 3D 공포영화를 표방하는 작품이다. 신인 박규택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폐탄광에 만든 최고급 리조트로 여행을 떠난 청춘들이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시간을 그렸다.

'터널 3D'가 시도한 풀 3D 촬영은 후반작업에서 3D 입체효과를 구현하는 컨버팅 방식과 달리 실제 촬영 단계부터 입체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컨버팅 방식보다 현장감과 느낌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언론시사회에서 공개된 영화는 터널의 깊이를 입체효과로 극대화해 실감나는 3D 영상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유미, 연우진, 송재림, 도희 등 청춘 스타들의 만남도 관전 포인트다.

21일 개봉 예정인 '내 연애의 기억'(감독 이권)은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를 적절하게 녹여낸 영화다. 여섯 번의 연애 실패를 경험한 은진이 완벽한 남자 현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강예원, 송새벽이 주인공 은진과 현석을 연기했다.

영화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이라면 공감할 연애 이야기로 막을 연다. 키치한 느낌의 내레이션과 자막 효과, 그리고 강예원과 송새벽의 현실적인 로맨스 연기가 재기발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두근거리던 영화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예상 밖의 오싹함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장르 교배를 통한 색다른 재미로 올해 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날에는 족구라는 이색 소재를 다룬 '족구왕'이 개봉한다. 학점 2.1의 대책 없는 복학생 만섭이 사랑과 족구를 쟁취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로 신인 우문기 감독의 데뷔작이다.

지난해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영화는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독특한 소재와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펼치는 유쾌한 이야기로 올해 한국 독립영화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1999, 면회'를 선보였던 독립영화 제작사 광화문 시네마의 두 번째 작품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굿바이 캡틴'…로빈 윌리엄스 사망

우울증 시달려 자살 추정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영원한 캡틴이 세상을 떠났다.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사진)가 향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빈 윌리엄스는 1970년대 말 코미디언으로 연극 무대와 영화, TV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뽀빠이'(1980)로 영화에 데뷔한 그는 '굿모닝 베트남'(1987)과 '죽은 시인의 사회'(1989)로 코믹하면서도 진지한 연기를 선보이며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에는 '후크' '알라딘' '토이즈' '미세스 다웃파이어' '쥬만지' 등 가족 영화들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7년에는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 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와 같은 가족영화는 물론 '인썸니아' '스토커' 등의 스릴러에도 출연하며 장르를 넘어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여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 경찰국은 로빈 윌리엄스가 이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질식이 사망 원인으로 보이며 자살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것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로빈 윌리엄스가 최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자살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최근 20년간 마시지 않았던 술을 다시 입에 대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가족들을 위해 재활하겠다는 뜻으로 재활원에 입소하기도 했다. /장병호기자

이윤지·이수혁 JIMFF 막 연다

개막식 사회—김재욱·가인 오프닝 공연

배우 이윤지와 이수혁이 오는 14일 충북 제천 청풍호반무대에서 열리는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이윤지는 최근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에서 광박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제8회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단독 사회로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인 바 있다.

이수혁은 모델 출신 배우로 영화 '자정시' '무서운 이야기 2'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으로 '상어' '고교처세왕' 등에 출연했다.

이윤지, 이수혁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은 개막 선언과 집행위원장의 인사말, 홍보대사 김재욱, 가인의 오프닝 공연 및 무대인사 등이 진행된다. 제천영화음악상 수상자 조영욱 음악감독에 대한 시상식과 축하 공연 이후 개막작 '하늘의 황금마차'가 상영된다.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14일부터 19일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병호기자

이수혁 이윤지

지진희·김성균·성유리의 '따뜻한 감동'

영화 '여름에 내리는 눈'(감독 전윤수)이 주요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10일 크랭크인했다.

'여름에 내리는 눈'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각양각색 커플들이 만나는 일생일대 가장 빛나는 고백의 순간을 담은 감성 드라마다.

이번 작품에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지진희, 김성균, 성유리, 김형철, 이제인, 곽지혜, 서강준, 강신효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은 연기 앙상블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첫 촬영에 들어간 배우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작품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식객' '미인도' 등을 연출한 전윤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여름에 내리는 눈'은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돈 좇아 인생 보내고 싶지 않다"

기성용 스완지시티 잔류 밝혀 "팀 경기 방식 만족"

이적설에 휩싸였던 기성용(25)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잔류를 결심했다.

기성용은 12일 현지 매체인 웨일스온라인과 인터뷰에서 "스완지에서 뛰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스완지의 경기방식을 좋아한다"며 팀 잔류 의사를 밝혔다.

기성용은 스완지의 장점을 열거했고, 특히 짧고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하는 경기방식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스완지에서 뛸 때는 많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 뛰는 것보다 까다롭지만 그런 점이 더 좋다"고 말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유럽 리그에는 기성용이 애스턴 빌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스완지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개리 몽크 감독은 기성용을 팀 전체 전열을 조율할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지목하며 잔류하기를 원했다.

몽크 감독은 "나도 기성용을 원한다. 기성용도 여기에 남고 싶다고 하더라"며 "기성용은 세계 정상권을 넘보는 선수다. 이제 성숙해 책임감도 느낄 줄 알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휴 젠킨스 스완지 회장도 직접 나서 기성용의 잔류를 강력하게 원했다. 2014~2015시즌까지 기성용과 계약한 스완지는 기성용 측과 연장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에이전트와 구단이) 계약 협상을 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냥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며 "돈을 좇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돈을 좇아 인생을 보내고 싶지도 않다. 경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돈은 경기력 때문에 따라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2012~2013시즌을 앞두고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스완지로 이적했다. 당시 스완지는 역대 구단 최고 이적료인 600만 파운드(약 100억원)를 지급했다. 기성용은 미카엘 라우드루프 전 스완지 감독과의 불화설 속에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로 임대됐다가 돌아왔다. 그 사이 라우드루프 감독은 경질됐다.

기성용은 16일 오후 8시45분 맨체스터의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012~2013시즌 스완지시티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기성용 /코리아 연합뉴스

박세리 이름 건 KLPGA 대회 신설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10월 개최

프로골퍼 박세리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12일 박세리와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인식을 열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렀다. 이름을 바꾼 올해 대회는 오는 10월3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여주 솔모로 골프장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6억원이다.

박세리는 "내 이름을 건 골프대회가 생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의 경험과 후원사의 힘을 합해 국내 메이저급 대회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6년부터 프로로 활동해온 박세리는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골퍼다. '맏언니'나 '노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그러나 박세리는 "후배들과 나이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경기할 때는 나이를 잊는다. 아직 현역이라 그런 말들이 어색한데 기자 분들이 따음리게 해주신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후배들과 함께 경쟁한다. 박세리는 "부담감이 크고 긴장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좋은 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들의 등장을 바라는 마음도 드러냈다. 박세리는 "후배들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에너지를 받는다. 나보다 더 나은 후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후배들이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훈련하고 기량에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고도 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조인식에 참석한 박세리 /연합뉴스

현역 은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박세리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많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기에 몇 년 더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

'류현진 새 동료' 코레이아 데뷔 승

다저스 이적 첫 등판 성공적 신고식

류현진의 새로운 팀 동료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영입한 우완 투수 케빈 코레이아(34·사진)가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코레이아는 12일 미국 조지아주 터너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으로 6-2 승리를 이끌었다.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5승 13패를 기록 중이던 코레이아는 다저스로 이적한 후 첫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며 시즌 6승째를 기록했다.

클레이턴 커쇼-잭 그레인키-류현진-조시 베켓-댄 해런으로 선발진을 꾸리던 다저스는 베켓이 엉덩이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마감하고 불펜진에도 부상자가 속출하자 코레이아를 급하게 영입했다.

선발과 롱 릴리프를 오가는 스윙맨으로 뽑힌 코레이아는 다저스 데뷔전부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배짱으로써 다저스 마운드에 숨통이 트였다. 코레이아와 지난 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데려온 또 다른 선발 로베르토 에르난데스가 제 역할을 해줄 경우 류현진은 안정적으로 5일 휴식을 취하며 등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코레이아는 이날 애틀랜타를 상대로 시속 140㎞ 후반대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섞으며 노련하게 마운드를 운영했다. 1~3회를 모두 삼자범퇴로 막았다. 4회 2개의 안타와 볼넷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1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는 6회초 무사 만루에서 에드리안 곤살레스의 우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1사 만루에서는 칼 크로퍼드의 내야안타와 저스틴 터너의 2루 땅볼로 2점을 추가했다. 8회에는 크로퍼드의 적시타와 상대 실책 등으로 6-1까지 달아났다.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5게임 차로 벌리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달렸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2일)

■ 사직

팀				계
넥센	402	011	200	10
롯데	010	000	000	1

■ 잠실

팀				계
SK	112	201	000	7
LG	102	000	000	3

■ 대전

팀				계
두산	000	041	122	10
한화	100	000	520	8

■ 광주

팀				계
NC	010	000	000	1
KIA	210	001	00X	4

축구대표팀이 10월 파라과이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0월 10일과 14일 두 나라와 차례대로 경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5일 베네수엘라(부천), 9월 9일 우루과이(고양)와 평가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10월 경기까지 확정되면 연속으로 남미·북중미의 강팀을 상대하게 된다.

특히 조만간 확정될 대표팀의 새 감독은 9월 평가전부터 관여할 것으로 알려져 경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구 대표팀 중남미 평가전

10월 파라과이·코스타리카와 경기 추진

한국은 11월에는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릴 아시안컵에 대비해 요르단(14일 암만), 이란(18일 테헤란)과 경기한다.

/유순호기자